

# 조립식 선반 가구로 8년새 매출 8배 스피드랙 '한국의 이케아' 노린다

## ▶ 중소기업 탐구

철제 앵글 선반을 조립하기 위해선 볼트와 너트가 필수다. 민병오 회장이 창업한 스피드랙(옛 영진산업)은 일찌감치 볼트 없이 조립할 수 있는 앵글 선반을 개발한 가구회사다. 주된 수요층이던 설비업체들이 기존 방식에 익숙한 나머지 볼트 없는 선반을 외면하면서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제품을 내놓은 2012년 매출은 44억 원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지속 성장한 덕분에 2020년 매출은 369억 원으로 8년 만에 여덟 배 증가했다. 올해 목표는 500 억 원으로 잡았다. 목표 시장을 산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바꾼 게 비결이다. 스피드랙의 제품은 배란다 수납장, 드레스룸 옷장, TV 하부 선반장, 책장 등으로 사용된다. 2013년 가업을 물려받으며 이런 변화를 주도한 2세 민호기 대표는 "조립과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온라인 판매에 집중할 게 주효했다"며 "한국의 이케아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 대표는 8년 전 우연한 기회에 가정용 시장의 성장성을 간파했다. 당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전시회에 제품을 출품한 게 계기였다. 공구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였지만 인연이 거꾸로 하는 가정주부들이 제품을 보고 연이어 주문했다. 그는 "주부들이 스피드랙 제품을 보고 '배란다에 두고 쓰면 좋겠다'며 경쟁적으로 주문했다"며 "가정용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았다"고 돌아봤다.

목표 시장을 산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바꾼 뒤에는 마케팅에 집중했다. 온



민호기 스피드랙 대표가 생산 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피드랙 제공

산업현장에서 외면받은 '無볼트' 가정 수요 노린 온라인 판매 대박 수납장·옷장·책장 등으로 사용

아마존 입점 - 수출 본격화  
日·유럽 등 20개국 확대 계획

삼성SDS와 자동화시스템 도입

라인 소핑을 확대하고 홈소핑 방식도 본격화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민 대표는 "홈소핑 1시간 방송에 주문이 1000건을 넘기는 등 생산 현장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주문이 넘쳤다"며 "주문서 출력에만 A4 용지 한 박스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단기간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선택할 수 있는 선반 길이와 폭 종류가 150여 가지에 달해 제품을 잘못 포장하는 사례가 생긴 게 대표적이다. 그는 "고민 끝에 스마트팩토리에서 답을 찾고 삼성SDS와 협업해 자동

화(RPA)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서를 자동으로 생산시설과 물류창고로 전달하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제품 길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페인트를 필요한 만큼만 분사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디지털 물류시스템(DPS)을 통해 포장 진행 상황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덩달아 높아졌다. 그는 "요즘 젊은 직원들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며 "자동화율을 높인 후 창의적인 업무에 재배치됨에 따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30% 넘던 이직률이 5%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스피드랙은 올해 들어 수출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하면서 수출 길을 본격 열기 시작했다. 북미 지역 외에 유럽과 일본 등 세계 20개국으로 판매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 대표는 "소비자 리뷰 텍스트를 분석하는 등 매일 쌓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 컨소시엄 구성 토종 mRNA 코로나 백신 만든다

원료 생산, 합성·정제, 완제 분담  
11-12월 임상 1상 투약 시작  
내년부터 연 1억 도즈 생산

‘토종’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한미약품과 GC녹십자, 에스티팜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원료 생산과 백신 제조, 완액을 주사기에 담은 완제 과정 등 mRNA 백신 생산 전 과정을 분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약품과 녹십자, 에스티팜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컨소시엄은 오는 11-12월 임상 1상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임상 2상을 끝낼 계획이다. 2상 완료 직후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생산량은 연 1억 회분 정도다.

2023년에는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종류의 백신 생산에 나선다. 컨소시엄은 임상과 핵심 원료, 대량 생산 설비 구축 등에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일부인 스파이크(돌기)를 만드는 유전 정보(mRNA)를 세포 안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몸안의 세포는 mRNA 정보를 활용해 스파이크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든다. 실제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면 백신



으로 생긴 항체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먼저 결합해 감염을 차단하는 원리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등 다른 방식 백신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고, 대량 소시엄을 결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컨소시엄은 오는 11-12월 임상 1상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임상 2상을 끝낼 계획이다. 2상 완료 직후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생산량은 연 1억 회분 정도다.

한미약품과 녹십자, 에스티팜은 원료 생산부터 완제까지 mRNA 백신 생산 전 과정을 나눠 맡는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분야별 한국 최고수들이 뭉쳤다"고 평가했다.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 생산→정제→조성→여과→충전→포장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한미약품은 mRNA 원료에 해당하는 플라스미드 DNA(원형 DNA)와 효소 등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대정군에서 플라스미드를 배양한 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해당하는 DNA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과정은 에스티팜이 담당한다. 우선 백신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와 효소, 백신 후보물질 등을 합성한다. DNA가 들어 있는 용액에 RNA 중합효소와 RNA 재료를 넣는 방식으로 mRNA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에스티팜은 이제까지 발굴한 mRNA 백신 후보물질 22개 중 하나를 최종 후보물질로 이날 낙점했다.

이와 함께 효소와 미성숙 mRNA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mRNA를 보자기처럼 감싸 세포 안으로 전달해주는 '지질나노입자 기술(LNP) 조성 과정도 에스티팜이 담당한다. 에스티팜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사용하는 LNP 기술을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연했다. 총 1500억원에 도입했다.

생산한 백신 완액을 주사기에 담은 과정은 녹십자가 담당한다. 녹십자는 충북 오창에 연 10억 회분 규모의 완제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김우섭 기자

# 24~40도까지 냉·온 조절 동시에 되는 펠트침대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정상 체온은 38도 안팎으로 사람보다 2도가량 높다. 무더운 여름철 반려동물의 체온을 낮춰주기 위한 용도로 대리석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다. 돌키스 펠트침대는 여기에 착안해 24도부터 40도까지 온도를 1도씩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제품이다. 돌키스 펠트침대를 생산하는 벤처기업 다산의 정윤진 대표(사진)는 "냉매를 쓰지 않고 소시만 활용해 전기 극성을 바꿔주는 식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특허를 출원했다"며 "강아지와 고양이 침대로 최근 인기 높아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산은 폐쇄회로TV(CCTV)용 기구물을 만드는 업체다. 정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반려동물용 대리석이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시장 연구를 시작했다.



다산 "온도 원격 조절" 안심 방수 기능도 갖춰

대리석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시작해 3년 만인 지난해 3월 첫선을 보였다. 그는 "대리석은 온도가 균일하지 않고 금방 식거나 높아진다"며 "소자를 활용해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물론 겨울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 1년 내내 쓸모있

게 만든 게 인기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냉·온 조절이 동시에 되는 펠트침대는 국내 최초"라는 게 다산 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크기가 가로 564mm, 세로 383mm, 높이 115mm로 중형견 또는 반려묘에게 적합하다. 제품 무게는 5kg이며 알루미늄 상판을 플라스틱 기구물이 떠받치는 구조다. 상시온도와 설정온도를 따로 정해 반려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정 대표는 "평상시에는 상시온도로 돼 있지만 반려동물이 올라가면 센서가 인지해 설정 온도로 자동 조절된다"며 "24시간 켜놔도 하루 전기요금 100원, 한 달 3000원으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방수가 돼 소변이나 물 걱정이 없고 리모컨으로 원격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돌키스 펠트침대는 흰색과 검정 등 한 개 모델 2개 제품이 나와 있다. 다산은 제품 관리와 사물인터넷(IoT) 등 부가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 한솔제지 친환경 종이 용기, 이디야 커피 담는다

## ▶ 내달 직영점 시작 - 전국 확대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 제품 '테라바스'(사진)가 이디야커피를 담는 용기로 사용된다.

한솔제지는 이디야커피와 테라바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7월부터 10개 안팎의 이디야커피 직영점에 테라바스를 공급하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디야커피는 매장 수가 3500개를 바라보는 국내 최대 커피전문점이다.

한솔제지의 종이 포장재 '프로테고'는 커피 원두를 담은 파우치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디야커피 매장 내 종이 물티슈 등 일회용품의 친환경 제품 전환, 친환경 제



제품 확대 및 공동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테라바스는 플라스틱 계열 폴리에틸렌(PE) 코팅 대신 한솔제지가 자체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사용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인증과 환경부 주관 친환경표지인증(EL606)도 획득해 식품 용기로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제지기업과 커피 브랜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맞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근 기자

# KMAC 소비자 추천 브랜드 귀뚜라미, 보일러 5년째 1위

귀뚜라미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소비자 브랜드 조사에서 가정용 보일러 부문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10~50대 남녀 소비자 1만1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총점 78.3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뛰어난 열효율, 미세먼지 저감 성능,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능을 갖춘 '거꾸로 뉴 콘덴싱 프리미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실내온도 조절기가 기본 옵션으로 적용돼 스마트폰 스피커와 연동해 음성으로도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

**(사)경기산학융합원**

## 심사·평가·자문위원 모집 공고

(사)경기산학융합원이 추진하는 정부·지자체 사업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평가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문위원 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심사·평가 및 자문에 참여하실 외부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분야 | 기술, 경영분야 00명 (산업기술분류표 기준 8개 대분류 분야)
- 선발방법 | 자격요건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분과별 모집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활동형태 | 평가 및 자문이 필요할 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신청방법 | 경기산학융합원 홈페이지(www.giuci.or.kr) 공지사항 참조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